

2018 아시아스퀘어 브라운백 세미나

## 스마트도시 건설의 주도권: 송도 사례연구

손정원

스마트도시 관련 논의는 도시개발전문가뿐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널리 논의되는 주제가 되었다. 그간 스마트시티 논의에서는 스마트시티가 무엇인가? 스마트시티를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? 스마트시티는 무슨 혜택을 주민들에게 줄 것인가? 등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어 왔다. 이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도시의 건설은 누가 주도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. 이는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. 왜냐하면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성격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다. 한국에서는 스마트도시가 4 차 산업혁명의 맥락에서 논의됨에 따라 스마트도시의 IT 기술적 측면이 매우 강조되고, 이에 따라 IT 기업의 주도성이 크게 부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. 이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스마트도시의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송도국제업무지구를 사례로 하여, 스마트도시 개발에서 IT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 적이며, 스마트도시 개발도 전통적인 도시개발 방식에서 크게 달라질 수 없음을 보이려 한다.

손정원 교수는 University College London 의 Bartlett School of Planning 에 재직중이다.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공학사,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석사, UCLA 공공정책대학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. 북미지역학회의 Benjamin Stevens Fellowship, Leverhulme Foundation 의 Earl Career Fellowship, European Commission 의 Marie Curie Fellowship 등의 지명도 높은 연구지원을 받은 바 있다. 지리학, 정치학, 경제학을 결합한 다학제적 접근을 사용하여 한국, 미국, 중국, 인도네시아의 지역경제를 연구한 논문을 다수 Antipode, Environment and Planning A, Urban Studies, Regional Studies 등의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였다. 최근 연구관심사는 한국도시/지역의 정치경제학, 중국의 기술혁신의 지역적 측면 등이다.

**Date & Time: September 18 (Tues.) 2018, 12:00-13:00**

**Place: Concourse (3F), SNUAC (Bldg#101)**